

다르게 만나는 백두대간

2006년 12월



머 리

대 간 지킴 이 만 들 어 지 다	-----	4
대 간 지킴 이 활 동 경 과	-----	5
숲 과 산, 자연에서 지켜야 할 예의	-----	10
답 사 자료와 후 기	-----	15
관 련 연 락 처	-----	93

백두대간과 함께 할

대간지킴이가 만들어지다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미신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백두대간을 국가에서 법으로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05년 1월 1일,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제 백두대간을 보호할 법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백두대간의 참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나서지 않고서는 백두대간이 제대로 푸르고 건강하게 보전되기란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녹색연합은 2005년 8월, 한반도의 푸른 등줄기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간지킴이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대간지킴이는 산줄기로만 인식되고 있는 백두대간이 사람과 자연, 문화를 품고 있음을 경험, 백두대간의 참의미를 느낄 수 있는 탐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참다운 백두대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다. 이들은 달마다 한 번씩 백두대간을 찾았다. 개발과 파괴로 멎들어가는 백두대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백두대간에 깃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대간지킴이는 사전에 서울근교와 경기도 주변에서의 현장산행, 모임을 통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논의했다. 또한 이를 통해 백두대간 숲과 골짜기, 산간마을을 찾을 때의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갔다.



백두대간지킴이 활동 경과

● 백두대간지킴이 활동 논의 내용

목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백두대간탐사대를 조직하여, 백두대간 현장을 정기적으로 조사 감시하는 활동을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마룻금과 마을을 잇는 새로운 백두대간 종주 개념을 만들어간다.

논의 내용

- ① 활동 목적 및 내용 : 일반 시민, 녹색연합 회원을 백두대간지킴이, 모니터링단으로 조직,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백두대간 현장 모니터링
- ② 운영 : 매월 1회 또는 격달로 진행, 2박3일 일정으로 백두대간 모니터링 실시 / 질높은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병행
- ③ 예산 : 모니터링 및 탐사활동비는 모임자체 회비로 진행
- ④ 명칭 : 대간지킴이
- ⑤ 모니터링 활용 방안 :
 - 백두대간 연례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으로 환경훼손현장 알리기
 - 시민들에게 현장모니터링 방법 교육

→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백두대간의 참모습을 알고, 다른 눈으로 백두대간을 만나기 위해 다르게 보는 백두대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월마다 백두대간 탐사를 진행하기로 함.

● 진행경과

① 모집 : 2005년 8월 작은 것이 아름답다/녹색희망/녹색연합/백두대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② 첫모임 : 2005년 09월 28일에 첫 모임을 사무실에서 진행, 백두대간지킴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과 백두대간 PPT로 백두대간 교육 진행

③ 활동준비 :

- 2005/10/16 : 가평 청우산, 대금산 마룻금 산행과 백두대간지킴이에 관한 논의 및 다음 모임 진행
- 2005/11/19 : 한북정맥인 양주 불곡산 산행 진행, 산에서 지켜야 할 내용 나누고 대간지킴이 활동에 대해 재확인
- 2005/12/15-16 : 아차산에서 2006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아차산 산행
- 2006/01/05 : 한글산경표 요약본인 '우리 땅 산줄기 백두대간' 자료로 백두대간의 의미에 관한 공부
- 2006/02/02 : 회의를 통해 모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백두대간 현장 탐사를 진행하기로 함.

④ 백두대간 탐사 진행

- 2006/02/17-19 : 자병산 석회석 광산 현장 방문과 석병산 탐사 진행
- 2006/03/19 :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가는 바다, 새만금, 새만금의 봄 행사에 참여
- 2006/04/15-16 : 고령지체소밭으로 훼손된 고루포기산과 목장으로 훼손되어 관광지로 방치되고 있는 삼양목장 탐사

- 2006/05/19-21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금대봉 탐사와 쓰임이 없어진 옛도로 조사
- 2006/06/24-25 : 자연휴식년제가 모두 끝난 덕유산에서 느린 산행 진행
- 2006/07/22-23 : 설악산 솜다리 탐사는 집중호우로 취소
- 2006/08/12-15 : 오대산 청년생태학교
- 2006/09/23-24 : 백두대간 고갯길, 문경새재와 하늘재
- 2006/10/21-22 : 양양 남대천, 연어를 찾아서
- 2006/11/25 : 한남정맥, 인천 계양산 지킴이 행사 참가, 산행
- 2006/12/15-17 : 낙동정맥, 울진 소광리 십이령 주변 산양서식지 울무제거 활동 진행

큰 산

기요타카
모리

나_이 저_문다

나_이 저_문고

어_두어_지질_수록

산_은 기_드은 다 거_두어_들이고

생_기 하나_만 산_밖으로 열_어든_다

산_은 자_기 바_깡에 이_른

온_가 나_뭇과 풀_들, 온_가 집_스든_까지

자_기 품_{으로} 불_러들_여 감_추고

자_기보_다 작_은 산_들도

큰 품_{으로} 감_싸안_{으며}

자_기 또_래의 산_에게_도 멀_리 봉_우리_를 기_대어_주며

산_은, 사_라들_이 잠_들 어_둠과

별_들이 반_짝이_어둠_과

강_물이 기_를 차_를 수_인는 비_만

하_늘에 놓_아두고

어_둠이_란 어_둠, 비_이란 비_은 다 불_려

제_어겉_도 감_추고

너_너하_게 우_뚝 솟_{으며}

캉_캉하_게 선_다

산은 안다

인간들의 기고 긴 세월을

얼마나 쓰다듬어주고

얼마나 품어 기운을 주었는가

이제, 오늘밤

마을 불빛도

하늘 둘 샅으로 불러 잠재우고

산은 먼 곳을 보며

스픈 것도 기쁜 것도 힘든 모양도 아닌

그냥 산의 모습으로

아직도 잠든지 아닌지

산자락 아래 감싸안고

몇 개의 등불을 따듯하게

그냥 바라보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

글쓴이 박경화(일다 / 2006-07-09)

지난 주말 덕유산을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드는 향적봉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드문 삿갓봉으로 향했다. 우리 나라 유명한 산봉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바위만 남게 됐다. 본래 바위가 드러난 봉우리였던 곳보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올라 흙이 무너져 바위가 앙상하게 드러난 곳이 많다. 나무와 풀이 자랄 틈도 없이 수없이 밟아버린 것이다.

산을 오를 때 꼭 정상에 밟아야만 할까? 산에는 숲이 있고, 계곡이 있고, 키 낮은 풀도 있고, 야생동물의 똥과 발자국도 있고, 새와 곤충도 있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안개와 구름이 몰려왔다 몰려간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뿐 아니라 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척 많다. 한 자리에 머물면서 그들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도 좋은 산행이 된다.

야생동식물을 괴롭히는 몇 가지 행동

정상에 올랐더라도 낯선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야호'를 외치는 건 곤란하다. 새나 물고기의 산란기, 동물의 번식기나 짝짓기 시기에 는 잔뜩 예민해져 있는데, 사람들 소리에 놀라 도망 다니느라 알을 품고 새끼를 낳기조차 힘들어한다. 우리가 굳이 밀렵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핸드폰 소리를 울리고, 음악을 틀어 놓는 것으로도 '밀렵'에 동참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또 냇가나 계곡에서는 잠시 잡았다가 놓아주더라도 물고기를 잡아서 안 된다. 사람의 체온 때문에 그만 화상을 입고 만다. 그저 눈으로 물고기의 자유로운 헤엄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계곡의 상류에서는 발을 담그는 것도 좋지 않다. 상류에는 물이 맑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만 사는 물고기와 벌레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어느새 물이 오염되고 그들이 떠나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계곡상류는 대부분 강의 발원지인데, 발원지가 오염되면 도시에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더욱 탁해진다. 그저 목이 탈 듯한 갈증을 식히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자.

집에서 챙겨갈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챙겨갔다가 되 가져오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준비물과 먹을 거리를 도시의 대형 마트에서 잔뜩 사서 신고 가지 말고 작은 가게나 재래시장, 농가에서 산다. 싱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해간 음식을 맛있게 먹은 뒤 쓰레기는 물론이고, 과일껍질도 반드시 챙겨 온다. 사람들은 과일에 묻은 농약을 먹어도 금방 탈이 나진 않지만 작은 새나 곤충은 껍질에 배어 있는 아주 적은 농약을 먹고도 목숨을 잃는다.

기념품을 사고 싶다면 지역 사람들이 직접 만든 장식품이나 생활용품, 신선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과일 같이 여행자에게는 추억이 되고, 지역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렇다고 희귀동식물이나 보신음식은 절대금물이다. 압화가 되어 액자에 들어있는 희귀야생화, 휴대전화 장식품 속으로 들어간 멸종위기 야생화, 희귀한 나무껍질로 만든 약재, 곰 쓸개와 산양탕 덕분에 멸종위기에 처해져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도시의 습성은 버리고 가자

자연에게 해를 덜 주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다니는 것이 좋다. 여행지가 바로 우리 집이거나 고향이라고 바꾸어 생각해 보면 무엇을 배려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생겨난 각박하고 급한 마음을 산에까지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도시의 습성은 다 내려놓은 뒤 여유로움만 가지고 산에 들자.

옛 사람들에게 산은 먹을 거리를 주는 곳이고, 입을 거리의 재료를 만들어 내는 곳이고, 집 지을 재료가 나는 곳이었다. 우리네 옛집은 산 아래 들판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 잡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며 살았고, 산이 주는 거름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러다 생명이 다하면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산은 고향과 같은 곳이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고, 신령스러운 곳이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산은 그저 주말의 여가를 즐기는 곳이고, 정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는 곳이고, 극기훈련을 하는 곳이고, 발아래 세상을 내려다 곳일 뿐이다. 아파트와 콘도, 골프장과 스키장을 짓기 위해 야금야금 헤치고 들어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간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다시 돌을 캐는 채석장, 석회석을 캐는 광산, 산을 두 동강 내는 도로, 허파를 뚫어버리는 터널까지 개통되어 전국의 산은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덧 짙은 구름이 몰려와 부슬부슬 장마비가 시작되는 샷갯봉에 올랐다. 비구름과 안개에 가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얼굴을 드러냈다 숨었다는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산을 이용하기도 하고 파헤치기도 했지만 큰 산은 말없이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고요히 품어주고 있었다. 그 풍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무엇을 보려고 산을 오르는가?”

산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대답 대신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람들이 산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았노라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했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산, 도시의 주인은 사람일지 몰라도 산의 주인은 나무와 풀, 곤충과 야생동물, 흐르는 물과 쌓인 흙, 바로 자연이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옷을 차려 입고, 선물을 뭘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듯 산에 들 때도 손님이 갖출 예의를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산을 헤치고 들어선 휴양시설과 ‘국토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이 지금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꼭 필요한 일인지 돌아보는 산행이었으면 좋겠다.

산은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남의 집에 가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이
우리가 산에 들면 산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산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대간지킴이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야생식물, 아름답지요? 함부로 꺾으면 그나마 우리 산에 남아있는 들꽃들은 사라집니다.
- 힘들다고 나뭇가지를 잡고 오르면 나무가 아프겠지요?
-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면 나무뿌리를 덮은 흙들이 쓸려 내려가 나무는 뿌리가 드러나고 상처받습니다.
- 야호! 하면 마음이 탁 트이십니까? 이 소리에 산 속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과일껍질은 까짓 버려도 괜찮겠지? 하신다구요? 무심코 버린 과일껍질을 먹고 암에 걸리는 다람쥐도 있대요.
- 내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든 산에 남겨 두지 말아요. 마음은 두고 가도 괜찮습니다. ^0^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산에 들어 생각해 보아요.

답 사 자 료 와 후 기

자병산 탐사를 다녀와서

2월에는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시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간지킴이'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의 계기가 된 자병산으로 탐사를 떠났다. 대간지킴이는 한달에 두 번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교육과 현장 탐사를 떠난다. 올해는 자병산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의 환경현황과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 글은 탐사에 함께한 자원활동가의 글이다.

언제부터, 왜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해 가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부터 녹색연합 후원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학기 중 어느 날, 전공과목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농담조로 천성산 터널을 비구니 하나 때문에 못 뚫고 있다고, 세금 낭비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씩씩하게 웃으셨다. 그런데 교실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따라 웃는 것이 아닌가.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강의실 한가운데 나 혼자 섬이 된 것 같았다. 그 때부터 성장과 개발논리의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지붕을 엮기 위해 벗긴 굴피나무

휴학을 하고 학교에서 떨어진 곳으로 멀리 이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뜸해지면서 지금이 바로 때라는 생각에 녹색연합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했고 이제 2주쯤 됐다. 백두대간보전탐에서의 자원활동.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산줄기이자 우리 국토의 핵심생태축이라는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맥주 '하이트'만 머리에 새겼지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풍월이다.

그렇게 자원활동을 시작했고 백두대간 현장을 탐사하고 모니터링 하고 지키는 활동을 해보자고 모인 대간지킴이를 따라 지난 주말에는 백두대간 줄기의 허리쯤에 위치한 자병산 탐사에 나섰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2004년 여름 동해안 도보 여행 때 멀리서 보았던 징글징글한 시멘트 공장은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한 기지뚝이었고, 그 실체는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다. 산계리에는 자정 무렵에 도착했지만 컴컴한 밤에 시뻘겁게 불을 켜 놓은 시멘트 공장이 흡사 스타워즈의 검은 투구를 쓴 이글거리는 눈빛의 다스베이더의 모습 같았다. 내가 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무서웠다.

다음날에는 석회석 지대로 자병산과 비슷한 식생의 석병산을 올랐다. 가벼운 산행이 될 거라 했는데 험했다. 역시 사람을 조직하는 데에는 거짓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_^) 지리산을 왜 어



석병산과 백두대간 설명

머니 같다고 하는지도 알 것 같았다. 산을 오르면서 여태까지는 한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야생동물의 흔적을 보기도 하고 비록 무슨 나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뭇잎을 통해 숲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나무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이래저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산행이었다.

자병산은 석회석이 풍부해서 지금까지 28년째 석회석을 채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산 정상부가 70미터 가량 깎였고 앞으로도 계속 파서 150미터는 더 낮아질 거라 한다.



석빙산에서 바라본 자병산 석회석 광산의 모습

일요일에는 백복령에서 자병산 석회광산을 살펴보기 좋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라파즈 한라 시멘트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로막고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라파즈는 지금 자병산을 다 파먹고 공장 문 닫고 떠날 때 복원이 가능하도록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라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요구도 들은 체 만 체 하고 있다. 또,

유치하게 탐사 나온 사람들을 미행하면서 사유지도 아닌 땅, 산에 오르겠다는데 현장 노동자들을 시켜 다짜고짜 반말에 욕을 하고 밀치고 먹살잡이를 했다. 결국 경찰까지 불러 이야기를 한 후에 녹색연합 활동가 세 사람만이 산에 올라갔다 왔다.

필시 환경공학을 공부해서 기업의 환경관련 부서에 일하고 있을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나 또한 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할 텐데 자병산에서 본 그들처럼 자기 밥그릇 때문에 앞뒤 꼭 막힌 사람이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어지러웠다.

좁아서 터질 것 같다고 아우성인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땅이 넓다. 어느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글 : 강혜원(자원활동가)



참가한 대간지킴이들의 모습

I 자료 I

강릉 넘어 평창 가는 길, 고루포기산 현장답사

꽃피는 봄이 와도 높고 험한 백두대간은 아직 겨울이 완전 가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봄, 아직 추운 백두대간 농촌에서도 농사를 준비하는 일손은 한창이겠지요? 1991년 4,742ha에서 2004년 9,170ha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산을 밭으로 만들어 버린 고랭지밭에도 봄은 와 있습니다.

4월 대간지킴이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루포기산으로 갑니다. 맛있는 채소를 키우는 청정농업으로 알려진 고랭지밭이 백두대간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때 : 4월15일 토요일 아침 9시 종로 5가에서 출발

가는 곳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루포기산 고랭지채소밭, 도암댐 등

회비 : 교통비와 식사 30,000원

준비물 : 등산화, 가방, 침낭(숙박 장소에 따라 침낭은 필요 없을 수도 있음), 따뜻한 옷, 보온병, 2끼 분의 쌀과 반찬, 행동식

신청과 문의 : 백두대간보전팀 조희은 02-747-8500

백두대간을 좁히는 고랭지채소밭

1980년대 초부터 고랭지채소 재배 붐이 일어나면서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벌채하는 고랭지농경단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랭지채소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1991년 4,742ha였으나 2004년 9,170ha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랭지채소밭 경작의 증가는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벌채하면서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랭지농경단지는 재배기간을 뺀 10달가량이 나지로 방치돼 비가 오면 토사가 그대로 하천으로 씻겨 들어가 하천생태계의 오염원이 된다. 이로 인해 최상류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의 하천생태계는 오염되고 있다. 강원도에는 대규모 고랭지농경단지가 3개소가 있는데 이는 모두 백두대간 매봉산, 덕향산, 고루포기산 일대의 산 사면과 골짜기 전체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산의 나무를 모두 벌채한 고랭지농경단지는 봄철 해빙기나 여름철 폭우 시에 토양의 침식과 유실이 계속 발생한다. 또한 고랭지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서 산 정상부를 개간하는데, 산 정상부는 토심이 얇고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배추나 무 등의 동일한 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취약해서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 비료나 농약 등으로 땅은 다시 오염되고 오염된 흙은 흘러내려 백두대간 주변계곡을 재오염시킨다. 또 그동안 사용한 많은 농약과 비료로 인해 토양이 매우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석회질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이라 불리는 백두대간에 더 이상의 대규모 고랭지재배단지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백두대간 마룻금 주변 일정구간에서는 대규모 산림훼손을 발생시키는 고랭지채소밭의 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백두대간상의 고랭지농경단지도 경작을 금지시키고 자연식생을 통

한 복원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이 급경사산지에 대규모 나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산사태나 토양유실들의 환경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들 훼손지를 안정시키는 안정공사를 시행한 후 생태복원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 마룻금 주변에 조성된 고령지 채소경작지 복원을 위해서는 국공유지의 경우 경작을 금지하고 자연식생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유지인 밭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훼손지 복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닭목재와 피동령을 넘어 강릉에서 평창으로**

닭목재는 닭의 목처럼 길게 뺀 형상으로, 오지중의 오지였던 주변 마을은 사방으로 길이 뚫리면서 고원관광지로 유명해졌다. 왕산리 왕산교에서 닭목재로 오르는 구간의 단풍이 유명하고 정상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산 전체가 고령지채소밭인 안반덕과 고루포기, 피동령, 용평리조트로 가는 길이 있다. 더 아래쪽의 대기리에서 정선 구절리, 아우라지, 씨감자와 당근이 유명한 고단리마을과 임계방면으로 길이 관통한다.

★ **자연의 물길을 거스른 도암댐 폐쇄하기로 결정하다**

국무조정실과 강원도,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5년 7월 12일 도암댐을 폐쇄하고 자연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암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남한강 수계의 최상류지역인 도암댐은 준공 이후 계속 물이 오염되어 2003년에는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쓰기도 어려운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다. 원인은 한전(한국수력원자력

의 전신)에서 91년 가동하기 시작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 때문이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와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걸쳐 있는 이 댐과 발전소는 기존의 수력발전소와는 다른 발전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백두대간 지하에 약 16km의 터널을 뚫어 물길을 돌린 유역변경방식의 발전소로 물의 흐름을 바꾸어 물을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하천의 흐르는 물길을 전혀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 수력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영서 쪽으로 흘러 남한강을 거쳐 서해안으로 들어갈 물을, 도수터널을 뚫어서 영동 쪽의 남대천을 통해 동해안으로 흐르게 한 데서 문제는 발생했다. 또한 도암댐 상류지역은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 국내 제일의 축산단지로 조성되어 대규모 목장과 70여 개의 소규모 목장이 산재하고 있다. 여기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가 있는 용평리조트와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한 고랭지채소밭 등 수많은 오염원이 있다. 이에 이미 건설초기부터 수질오염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건설당시 오염원에 대한 수질대책을 검토 지시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도암댐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서는 고랭지밭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제대로 예측치 못한 채 사업을 강행했고, 92년 한전은 자체조사연구 용역을 통해 도암댐의 수질이 심각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수질오염 말고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약 35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실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에 쏟아 부은 돈만 1,16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금껏 댐과 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강릉수력발전소는 발전 후 강릉시를 관통하는 남대천을 통해 동해로 들어가는 방류수가 남대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강릉 시민들의 반발의 부딪혀 2001년 3월 발전을 중단했다. 2003년 태풍 루사가 강원도를 강타했을

때 도암댐이 수해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정선, 영월, 평창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댐 해체 요구를 받아왔다. 댐 건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와 논란을 빚어온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를 결정하고 자연방류 시키기로 한 결정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 전부는 아니다. 환경성이나 경제성,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댐을 만들어 환경재앙을 불러온 책임을 묻고 지금껏 도암댐이 문제 없다고 얘기해온 한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한다. 또 환경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해줘 환경오염을 부추긴 점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도암댐 폐쇄 이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검토해야한다. 도암댐은 폐쇄 후 자연 방류하되 댐을 철거하지 않고 홍수조절과 고랭지채소 경작에 의한 토사유출을 막아주는 사방댐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도암댐의 기능을 수력발전소에서 홍수조절댐이나 사방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암댐에 고여 있는 물을 방류하려면 이미 쌓여있는 오니(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도암댐의 물을 빼내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도암댐 건설의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자연의 흐름을 거른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도암댐은 건설 당시부터 10년이 넘도록 환경적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생산해냈다. 도암댐을 출발로 이제는 자연의 흐름을 막아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댐에 대한 폐쇄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 백두대간에 불어오는 풍력바람

대규모풍력단지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대관령에서의 풍력발전 단지 건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발 예정지는 강원풍력발전 건설사업 사전협의서에서도 약 50% 정도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오대산국립공원 노인봉-매봉-곤신봉-대관령-능경봉-고루포기산-옥녀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능선으로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동쪽은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도 급경사지나 생태적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는 드물다. 풍력발전은 지속적인 풍속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풍력기뿐 아니라 저속 바람 등을 대비해 발전기단지와 송전 선로가 필요하다. 대관령은 기업식 고랭지채소밭, 목장, 도로로 인해 계속해서 훼손되어왔다. 만약 이곳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이곳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강원도가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고자 함은 고용창출, 교육,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이나 보전에 대한 개념이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다. 강원도의 생태계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의 교육 자료이며, 관광자원이다. 강원도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전하는데서 고용창출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풍력에너지는 분명 대안에너지이다. 하지만 자연생태계와 우거진 산림 또한 소중한 대안에너지이다. 과연 우리는 백두대간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로 열리는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은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설악산과 태백산을 연결하는 생태계의 연결통로로 지리산과 함께 국내 제일의 숲을 간직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면적은 298.5 평방킬로미터이며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해발 1400m가 넘는 많은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다. 오대산의 중추인 비로봉-북대사고개-두로봉 일대는 분비나무를 비롯해 잣나무, 주목, 전나무 같은 고산 침엽수 등이 즐비하고 1000여종에 달하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두로봉은 백두대간의 큰 봉우리 중 하나로 산림청에서 지정보호하는 주목군락지 천연보호림이 있다. 또한 오대산은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산양, 사향노루, 수달, 하늘다람쥐, 삿, 담비, 늑대, 여우 등 온갖 멸종위기종의 보고다. 또한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 산개구리, 까치살모사 등 양서파충류들에게도 낙원이다.

또 북한강과 남한강을 나누어주는 분기점이 바로 오대산에서 시작한다. 산의 북동쪽인 미천골을 중심으로 양양군 서면 쪽으로 빠지는 계곡은 후천으로 후천은 동해 바다로 흘러가며 후천의 하류는 연어의 회귀천으로 유명한 남대천으로 이어진다. 홍천군 내면 쪽으로 빠지는 계방천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가 서식하는 깨끗한 하천이며 이 물은 내린천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곳에는 모두 수달이 살고 있다. 이렇듯 오대산은 능선이나 계곡이나 모두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놓칠 수 없는 곳이다. 남한강 쪽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주요한 입구인 월정사 일대의 오대천이 대표적이다. 수달의 서식지이며 꼬리치레도롱뇽이 주변의 상류계곡이 많이 살고 있다. 오대천은 동강 최상류지역으로 평창을 지나서 정선에 가서 아우라지로 유명한 조양강과 만나서 물길이 커지면서 최종에는 동강에 합류한다.

고루포기산 탐사를 다녀와서

대부분의 산이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기간이다. 그래서 이번 대간지킴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 주변의 고루포기산으로 갔다. 첫날에는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의 대관령 삼양목장,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의 도암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의 고루포기산을 차례로 둘러보았고 둘째 날에는 오대산 월정사에 갔다.

학교를 다닐 적에 사회나 지리과목은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편이지만 그 당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터라 요즘 들어 다시 생각할 일이 많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회과 교과서에서 강원도 산간에서는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 덕에 고랭지 농업이 성행한데 남부지방에서 자라 고등학교 수학여행 전까지는 한번도 강원도 쪽 동네에 가 볼 기회가 없었던 내게는 고랭지 농업과 강원도라는 청정 두메산골의 이미지가 더해져 좋은 일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누구와 함께, 왜 봤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그저 여주인공이 예뻐던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지프차를 타고 달리던 들판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에도 저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더랬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도암댐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동고서저' 지형을 이용해 설계했다는 유역변경식 발전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 생각이 참 기발하고 신기하네'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는 앞뒤가 없다. 왜 그런 사업을 시행했

고, 그 시행 과정에 어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있었고 또 그들의 논리는 어땠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의 경과를 어떻게 보는가. 학교 교육은 그렇게 사람을 세상 일의 반도 모르는 바보로 만든다.

어쨌든-

처음에 갔던 대관령에서는 넓디넓은 초지와 풍력발전기 여러 대를 비포장 길을 지나며 보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다'는 말이고 다시 생각하면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으레 산에는 나무가 있고 소는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지금은 아닐지라도) 잔디는 축구장에나 있을 법하다. 대관령 산기슭에 초지와 소(지금은 없다



삼양목장에 있는 표어

지만)가 있으려면 그 자리에 있던 나무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동식물들은 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영화의 화면 가득 보였던 초지는 그 모습만 보여 아름다워 보였을지 몰라도 그 초지를 바로 옆의 숲이 우거진 산과 함께 보고 있자니 이게 뭔가 싶었다.

지금은 수지탄산이 맞지 않아 소 떼는 없고 ATV(4륜 구동 오토바이)를 탄 관광객들이 신이 나서 비포장도로가 움푹 패이도록 달리고 있었고 풍력발전기 14기가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올해 35기가 들어서 대관령에는 총 49기의 풍력발전기가 세

워질 것이다. 풍력발전도 대안에너지로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한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

또, 한국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 댐이라는 도암댐은 녹조가 어찌
나 심하던지 미술시간에 온갖 색깔 물감을 쓰고는 붓을 뺀 물통의
물 같았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댐을 짓고 산 밑에 터널을 뚫어
물길을 돌리다 문제가 생기니 멈추고, 억지로 하더니 꼴 좋다고
비웃는 것이 싫어 어떻게든 다시 써보겠다고 궁리를 하고 있다니
허허 웃음이 나오는 한편 이 일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 걱정도 됐
다.



무용지물의 도암댐

서 길이 막힌 물은 갈 곳도 없이 고여 날이 갈수록 골칫거리가 되
고 있다. 내 먹을 것만 지어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

고랭지 채소밭에서는 아직 밭
이 미처 다 정리가 안 된 상태
에 비료포대를 정연하게 갖다
놓은 모습을 봤는데 그 밭은
또 돌 반 흙 반이었다. 산의
나무를 온통 다 베어 내 비가
오면 흙과 영양분이 빗물에 쓸
려 내려가는데 농사짓겠다고
다른 데서 또 흙을 가져다 뿌
리고 그 흙만큼의 비료를 뿌린
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게다가
이 비료와 함께 쓸려 내려간
흙은 도암댐의 수질악화를 부
추기고 있다고 한다. 도암댐에

데 도시 사는 사람들까지 먹이려니 없던 문제도 생긴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셈이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차 안에서 조는 사이에 오대산 부근에 도착해 민박집을 정했다. 주인 분 알게 모르게 폐를 많이 끼쳤는데 동네도 여느 관광지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평온했다. 다음날에는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을 걷고 월정사 경내를 둘러보았다. 숲길에서 청설모와 다람쥐를 많이 만났다. 여전히 분간이 가지 않는 나무들과 꽃들까지. 머지않아 언젠가는 하나씩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1박2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일찍 서울로 출발해 해가 하늘에 떠있는 동안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걸 매번 하는 생각인데, 사람이 제일 대단하다. 15km나 되는 터널을 뚫어 물길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산 하나를 통째로 밀어 받을 만들고는 흙이 없으면 흙을 사다 붓고 지력이 약하면 비료를 갖다 부어 농사를 짓고, 소 먹이겠다고 수 만평 되는 산의 나무를 깎아 초지를 만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일 대단하다. 발상의 전환이 다른 곳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글 : 강혜원(자원활동가)



교루포기산, 바둑알 같은 것이 비료포대이다

5월 꽃두대간 백두대간 금대봉 답사

5월은 계절의 여왕, 꽃이 만발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달입니다. 백두대간에도 쌓인 눈이 녹고 많은 꽃과 잎들이 피어났습니다. 5월 대간지킴이의 발길은 금대봉과 대덕산 일대로 찾아갑니다.

수백 그루의 주목나무 자생지인 함백산이 이어지는 대덕산, 금대봉은 국내 최대 양서파충류 서식처이자 야생화들의 천국입니다. 대덕산과 금대봉은 126만평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물' 같은 곳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희귀야생식물의 자생지로 어떠한 식물채취도 금지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해마다 4-5월이 되면 차떼기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외지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5월에는 대간지킴이와 함께 야생식물의 천국 금대봉의 산나물 채취현장을 찾고, 산나물이 비단 우리의 먹을거리로만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로 여기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자세한 내용

때 : 5월19일 금요일 늦은 밤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출발

가는 곳 : 강원도 정선과 태백을 잇는 싸리재, 대덕산-금대봉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일대

내용 :

- 금대봉, 싸리재 일대 백두대간 생태탐사
- 정선국유림관리소와 산나물 채취 모니터링

회비 : 교통비와 식사 30,000원

준비물 : 등산화, 가방, 침낭, 따뜻한 옷, 물병, 2끼 분의 쌀과 반

찬, 행동식

신청과 문의 : 백두대간보전팀 남경숙 02-747-8500

*** 금대봉 (金臺峰/1,418m)**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용소, 제당곰샘을 안고 있는 의미 깊은 산으로 단군왕검이 있는 검대라 하여 신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금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금대봉의 생태 가치**

금대봉과 대덕산 일대 4.20km²은 환경부가 2년에 걸쳐 자연자원조사를 벌인 후 1993년 4월에 환경부에 의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1997년 8월 강원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강원도에서 생태계보전지역(얼마 전 용어 변경 :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는데 실제 관리는 태백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대봉은 우리나라 야생식물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희귀한 식물들의 자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산에는 주목을 비롯하여 각종 원시림이 뽁뽁이 차 있으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금대봉은 1993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당시 학자들이 2년 동안 현장 조사를 하면서 모데미풀, 대성쓴풀(이상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한계령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II급), 노랑투구꽃 등 희귀식물 16종과 한국 특산식물 15종을 발견했다. 게다가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된 하늘다람쥐, 꼬리치레도롱뇽 등 희귀동물을 비롯한 미기록 곤충 13종도 함께 찾아냈다. 금대봉에 자생하는 식물은 공식적으로는 480여 종. 실제로는 식물학자들은 9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 식물연구소 현진오 박사는 “종수로만 따지면 지

리산 1,000여 종, 한라산 1,500여 종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희귀식물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지리학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 관리 실태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의 다양함으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금대봉은 생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의 관리는 그 동안 안내판 설치 등의 작업과 모니터링 등 한정적인 관리만이 이루어졌고 자연자원, 이용자,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마다 봄이 되면 탐방객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는 산나물 채취꾼들로 인해 희귀식물에 불법 채취, 동물 남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동식물상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대덕산 금대봉 생태답사를 다녀와서

-개발과 보호의 딜레마에 빠지다(2006.5.19~21)

대학에 입학한 후 환경공학개론 수업의 첫 시간이었다. 지도교수님은 대뜸 당신이 환경공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부끄럽고 후회되는 경험담을 들려주겠다고 하셨다. 출근길에 우연히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보았는데 이중 삼중 겹겹이 싸여 최종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포장된 것들이 진정 내 집에서 나온 것들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셨다. 명색이 폐기물처리를 전공한 대학교수가 정작 본인의 집 쓰레기 사정은 돌보지 못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에 허허 웃을 수밖에 없으셨단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나는 여러분이 공학을 떠나서 환경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 환경공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발을 딛은 나에게 지도교수님의 그 솔직한 고백은 공부하는 내내, 일을 하는 내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교수님 말씀 때문이었는지 대학시절 나는 스스로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여수 소리도와 새만금을 둘러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뿌듯해 하였던가.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자만이었고, 환경을 공부한다는 사람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녹색순례 기간 내내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고, 교수님이 요구했던 자부심은 결코 자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지리산 녹색순례를 다녀온 후 허공에 떠있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무렵, 백두대간보전팀으로부터 대덕산 금대봉 답사의 동

행 제의를 받았고, 자원활동가라는 낯선 이름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나선 길이었으나 생태탐사나 산나물 채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딜레마의 연속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답사길이였다.

현재 금대봉 지역은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가 해제된 직후라 백두대간 종주를 하는 산악인, 야생화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 산나물 채취꾼 등이 몰려들고 있다. 게다가 금대봉 지역이 '야생식물의 보고'로 기사화된 덕에 주말에는 신문에서 소개한 야생화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온 더 많은 탐방객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산나물 채취꾼들은 서울, 경기도, 경북 등 각지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싸리재와 검룡소에 초소를 마련하여 금대봉 지역 입산자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관리 주체 및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고, 인력 및 예산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듯 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산나물채취 관련해서는 느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초소 근무자는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많게는 개인당 20~30kg까지의 산나물을 채취해 가고 있었고, 칼로 밀등을 바싹 잘라서 채취한 것들이 많았고 간혹 뿌리까지 뽑힌 개체들도 눈에 띄었다. 금대봉 일대를 산행하면서 조사하던 중 부드러운 꽃대부분만을 모두 꺾어버린 홀아비꽃대 군락지를 발견하기도 했다. 공동조사를 벌였던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본 후, 부랴부랴 금대봉 일대의 입산통제기간을 산나물 채취가 끝나는 시점인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고시를 발효하긴 했으나 또 다른 관리주체인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그 실효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만난 수십 명의 산나물 채취꾼들은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 통제 기간만 엄두에 두었지 산나물을 비롯한 야생식물의 채취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사실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듯 하였다. 지역 주민이라는 이는 생계수단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크게 분개한 듯 보였고, 멀리 서울에서 금대봉 지역까지 산나물을 사러 왔다는 이는 매년 뜯어줘야 더 많이 나는 것이 산나물이 아니냐며 우리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노랑무늬붓꽃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멸종위기 혹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중요도 역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나물을 뜯은 자루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한계령풀이 나와 그 보전가치를 알려주었을 때 이 산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지역주민을 보며 금대봉 지역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이제 막 야생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나와 매한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 유독 개화기간이 짧은 한계령풀의 꽃을 5년 동안이나 보고 싶어 안달했다는 활동가의 이야기를 받은 우스개 소리로 들었을 테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때는 영화를 누렸겠지만 이제는 텅 비어버린 집들과 학교, 참으로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폐광지역 풍경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큰 소득원이 된다는 산나물 채취를 무작정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대봉 지역이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 그곳을 생활권역으로 하는 그들은 분명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개발과 보호의 딜레마임이 분명하다.

한 활동가는 자연은 아는 만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탐사가 필요하다던 어느 식생 탐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과 또 그들의 영향으로 그곳을 찾아 훼손에 가담하는 일반인들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역할이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한 듯 보였다. 이것 또한 조사와 보호의 딜레마이다.

금대봉 탐사의 후기를 부탁받고 나서 한 줄도 적지 못한 채 여러 날을 보냈던 것 같다. 나는 여전히 공학적 사고에 익숙한 지극히 도시적인 사람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단순히 공동의 것을 탐하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공유지의 비극'이라 여기고 나선 길에서 결코 간단하지 않은 딜레마를 접하고 나니 지금은 강제와 통제가 아닌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글 : 자원활동가 윤소영

I 자료 I

덕유산 넓은 품에 들다

이번 달은 덕유산으로 갑니다. 사람에게도 휴일이 있고, 오랜 기간 일한 사람에게는 휴식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집의 주인은 지치기 마련이듯 많은 탐방객과 산악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산도 지치기 마련이라 자연도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자연휴식년제는 탐방객들의 이용으로 훼손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해 훼손된 자연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리산과 중부백두대간을 잇는 덕유산은 올해, 자연휴식년제 구간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덕유산 자락이자 백두대간의 주요한 고개인 육십령 고개 아래에서는 경주마목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6월의 푸르름을 간직한 덕유산과 훼손되고 있는 덕유산 줄기를 만나러 갑니다.

● 자세한 내용

때 : 6월 24-25일

출발시간 : 24일(토) 아침 6시 반 4호선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 / 7시 양재역 7번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가는 곳 : 덕유산국립공원

- 육십령채석광산, 명덕지구 경주마목장 건설 현장
- 경남 거창군 북상면 황점매표소-삿갓재대피소-무룡산-동업령-칠연계곡-칠연의총-전북 무주 안성면 안성매표소

회비 : 교통비와 식사, 입장료 등 40,000원

준비물 : 등산화, 가방, 비옷, 침낭(삿갓재대피소에서 잠을 자므로 꼭 필요), 매트리스, 따뜻한 옷, 물병, 첫날 점심도시락, 3끼 분의 쌀과 반찬, 개인 식기, 간식

마사회가 유린한 백두대간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마사회의 이윤 보장을 위해 백두대간이 유린되고 있다. 대규모의 산림훼손과 생태계파괴를 동반하고 있다. 마사회의 경주마목장의 조성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의 알토란 같은 천연숲이 사라지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덕유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 중간에 해당하는 생태보고인 백두대간 육십령 자락이다. 이곳은 특히 백두대간에서 호남의 생태축으로 빠져가는 호남정맥의 분기점 지역이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일대다. 백두대간 육십령 아래 46만평 규모로 2004년 7월 착공했으며 총사업비 1164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공사 착공식 때는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도 참석했다. 지방청의 경찰간부 등 관계기장도 다수 참석했다. 경주마목장은 마리당 1억원까지 호가하는 경주마와 50억원에 이르는 씨수말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말사육 시설을 건설 중이다. 초지조성 25만평, 경주로 1개소, 건축물 48동(마사 22동, 마방 500칸)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덕유산국립공원이 뒤에 보이는 산허리를 뭉텅뭉텅 잘라냈다. 현장을 그냥 보면 대규모의 택지개발 혹은 광산 개발을 연상케 할 정도다. 수십 대의 굴착기,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백두대간을 파헤치고 잘라내고 있다. 공사현장의 모습은 여기가 과연 백두대간 자락이었는가 의심의 갈 정도다. 정부의 백두대간 보호법의 의지와 정책은 적어도 공사현장 주변에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마사회는 공사현장의 산림훼손에 대해 "친환경 목장으로 지형과 주변 임상을 잘 살리면서 폐수와 배설물도 모두 재활용한

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어떤 것이 친환경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당초사업부지는 당초 70만평으로 계획됐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46만평으로 줄었다.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초 개발면적보다 많은 축소하여 협의해 주었다.”면서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현장에는 어디에도 환경저감 대책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산림청의 산림형질변경 협의도 의심을 자아낸다. 당초 마사회의 장수 경주마목장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청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2001년 11월 후보지로 선정 된 이후 착공까지 약 3년 동안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다. 과연 허가를 해주어야 하느냐부터 국유림의 대부 즉 국유림을 사용토록 빌려주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도 있었으나 끝내 사업은 허가가 되어 착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의 초지법이 튀어나와 이를 근거 삼아 산림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해 주었다. 초지와 산림의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초등학교도 아는 사실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그 지역의 유력한 여당 실세인 정치인 나서고 여기에 산림청의 적당한 협조가 공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유림의 대부 즉 빌려주는 것도 논란거리다. 과연 이런 사업에 국유림을 빌려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이윤을 위한 사업에 관광목적에 이렇게 국유림이 허가되는지 의문은 더 커진다. 더욱이 최근에 산림청은 사유림을 살들여 국유림을 확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그 1차 대상지가 백두대간이다. 그런데 마사회의 경주마목장 사업에서는 국유림을 내주고 행정상의 각종 편의를 봐 준 것이다. 이와 함께 장수군은 목장 유치를

계기로 말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가족휴가촌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임도(林道)를 따라 수km씩 승마 코스를 조성, 관광객들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낸다는 것이 산림청의 기본적인 사업취지였다. 그런데 임도를 통해 마사회의 관광시설까지 지원하려는 것이다.

마사회의 백두대간 훼손에는 무엇보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이율배반이 지적된다. 마사회의 경주마목장이 백두대간 한가운데 추진될 당시, 두 부처는 각각 국회에 백두대간보호법을 상정하고 국민들에게 백두대간을 법으로 관리하여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에서는 보호약속을 해 놓고 뒤에서는 대규모 훼손에 협조한 것이다.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었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는 70년대 원시림을 훼손하며 목초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이 중단된 땅이 1800만평 가량 대규모로 남아 있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의 대관령 삼양목장 일대다. 정부차원에서 마사회가 경주마목장이 정말 필요하고 환경부와 산림청이 허가할 정도였다면 신규로 백두대간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1800만평의 10% 사용해도 충분히 조성하고도 남았다. 뿐만 아니라 전북과 충남 등의 서해안 쪽도 간척지를 비롯해 목초지 조성이 가능한 대체부지가 넘쳐난다.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헤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정부가 백두대간을 관리하고 보전하고 있는지 불신이 증폭된다. 이번 마사회의 경주마목장의 문제는 불가피함이 아니라 충분한 대안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본래 마사회가 정치권의 로비와 불법자금으로 얼룩졌던 과거가 있었지만 특히나 이런 사업과정에서도 그런 흔적은 언뜻언뜻 눈에 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 마사회와 농림부에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관계자는 “마사회는 국정원 정보관들도 손을 흐드는 곳이다. 마사회와 정치권이 연결된 비리나 불법에 관해 첩보나 정보 등을 보고로 올리면 이들 만에 정치권의 실세가 정보관에게 연락을 하여 ‘당신 그거 책임질 수 있냐’라고 다그친다.”면서 심지어 “비위 보고 이들 만에 지역의 번방 지부로 발령이 나기도 했다. 우리도 이런데 대한민국에 그 어떤 기관이 마사회를 손대겠느냐,” 마사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귀뜸했다.

실제로 백두대간에서 마사회 경주마목장과 같은 규모의 대규모의 산림훼손 사업은 2000년 이후에는 없었다. 그것은 환경부나 산림청도 잘 알 안다. 이번 장주 경주마목장은 마사회라는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한 돈과 조직이 아니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실제로 기공식 때 열린우리당의 정세균의원과 강현욱 지사 등 정치권 실세들이 자랑스럽게 참석하여 주빈 노릇을 했다. 백두대간 덕유산 자락 옥십령 일대를 파헤친 마사회의 장수 경주마목장의 현장의 여러 모습은 마사회의 이윤을 보장하기 대규모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해야하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사회의 백두대간 훼손현장은 정치권의 입김에 행정기관이 동조하여 국토의 가장 소중한 곳을 막개발한 표본이다. 2006년 우리 국토는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여 무너지고 있다.

I 자료 I

“자연과 하나된 당신은 청년입니다.”

올해 9회를 맞는 청년생태학교는 녹색연합의 대표적인 현장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적 삶을 꿈꾸는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자연을 몸으로 느끼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육마당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산

2006년 청년생태학교는 백두대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찾아갑니다. 백두대간이 관통하여 자연 생태계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그 중에서도 가장 첩첩산골이라 할 수 있는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일대의 자연에서 골짜기 틈틈이, 산자락 구석구석 살아있는 생명의 숨소리를 느껴보려 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일대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난리가 나도 능히 숨어 살 수 있는 영화 속 동막골과 같은 곳입니다. 하늘을 뒤덮는 수목과 지천에 피어있는 야생화는 태고의 원시림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라 할 수 있는 이곳조차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발길이 잦아지고, 파괴적인 건설현장이 늘어감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시림 속 작은 생명의 숨소리를 느껴보고, 산자락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의 소박함을 만나보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백두대간의 아픔까지 보듬어보고 나면 온전한 숲의 기운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대산 청년생태학교를 다녀와서

청년생태학교

잊지 못할 거다.

차마 잊을 수 없다.

청생을 가기 2주 전에 발목을 접질렀다. '낫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우면산에서 사전교육을 받았고 '어린이자연학교' 모듬 교사로 따라 갔다 왔고 내쳐 청생까지 다녀왔다. 어린이자연학교에서 누구 날 괴롭힌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시달린 후 청생을 갔다. 서초구민회관 앞에 모여 차를 기다리며 참가자들이 부려 놓은 배낭을 보면서도 '자연에 드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는 우리 몸을 보전할 것들을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리바리 싸 들고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원도로 휴가를 떠나는 차들과 섞여 오랜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낸 후 도착한 삼봉자연휴양림에서 사흘간의 식량을 배급받고 간단히 발대식을 하고 드디어 우리 모듬의 길을 떠났다.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스팔트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편리함은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펜션들이 들어서 있었다. 본격적인 산행을 위해 찾길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갈 때도 공사 중인 펜션들이 계속 눈에 띄었다.

숲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심마니들이 산에 들며 제를 지내는 곳이 보였다. 생전 안하던 기도를 하려니 멧쩍었지만 잘 좀 봐

달라고 기도도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무게의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옥신거리는 발목에 신경이 쓰여 보이는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 왔다. 이틀 밤 사흘 낮 산행에 50리터 배낭을 보니 정감 안 가게 생기긴 했지만 민달팽이가 최고 부럽다.

계곡을 건너다 미끄러져 등산화로 물로 흠뻑 적셔주고 다른 분들 걱정도 시켜드린 뒤 헉헉대며 갔으나 다행히도 오래지 않아 야영지를 정해 텐트를 치고 저녁밥을 지었다. 나중에는 잠시 랜턴을 모두 끄고 물소리 바람소리,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들었다. 사람이 들지 않은 숲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싶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날 밤 페르세우스자리에서 유성우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별을 보기에 너무 좁았던 것.

텐트에서 자본 것은 십년도 더 된 일이다. 그나마도 비가 오는 바람에 오밤중에 자다 말고 급히 피신했더랬다. 간만의 기분을 즐길 새도 없이 잠들었다가 새벽 추위에 잠시 깼다. 불일을 보고 싶었지만 추워서 꿈쩍 하기 싫어 다시 잤다. 아침에 이야길 들으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침도 먹고 자리를 정리하고 길을 떠났다. 슬슬 짐의 무게에 적응 겸 체념이 될 무렵 이제부터는 물을 구할 수 없다고 각자 준비해온 물통에 물을 담아 그 무게도 더해졌다. 숲의 생김새와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여러 분들이 알려주시는 꽃 이름도 따라 불러보며 산을 올랐다.

방태산, 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들 알고 찾아오는지 등산로 옆의 애꽃은 나무만 전국 각지 산악회에서 왔다가 부지런히 매어 놓은 리본을 매달고 있었다. 선의가 이런 식으로 번질되면 곤란하다. 이제 이런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깃대봉에 올라



방태산 주억봉에서

주위를 조망했다. 우리가 갈 곳인 주억봉은 저 멀리 솟아있었다. 능선을 따라 가는 중간 중간에 꽃들이 가득 피어 군락을 이룬 곳이 많았다. 그렇게 많은 야생화를 보기도 처음이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산이라 그 정도로 남아있는 것일 테다. 절경이가 잔뜩 살고 있는 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역시 된장국과 함께(우리는 매끼마다 된장국을 먹었다) 점심을 해 먹었다.

봉우리를 몇 개를 넘어도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던 주억봉이었는데, '이 봉우리 넘으면 이제 주억봉이 바로 보이겠네.'라고 힘을 내어 올랐던 봉우리가 바로 주억봉이었다. 모두 허탈해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등에 땀자국이 나무 나이테처럼 생겼다. 이곳에서도 멀리 산줄기를 보며 저것이 백두대간 마룻금이고 저것은 오대산이라는 등의 산줄기 설명을 들었다. 주억봉에서 내려와 갈림길에 이르렀지만 길이 없어 나무와 수

풀을 헤치고 길을 만들며 골짜기로 내려갔다. 발에 걸리는 풀에 굽히고 찢리고 고생 좀 했다. 그러는 중에 물소리가 들려 환성을 질렀지만 글썽,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계곡에 내려서서 계곡 물길을 따라 갔다. 금세 어두워져 랜턴을 꺼내 불을 밝히고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기로 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8시, 9시쯤 됐을까. 좀 넓은 곳이 나타나 비박을 하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 젖은 등산화 탓에 쭈글쭈글해진 발바닥도 말리고, 계곡 돌 들춰내자 나오는 꼬리치레도롱뇽을 보았다. 꼬리치레도롱뇽도 실제로는 처음 봤다.

사실 청생을 가면서 비박에 대한 기대를 했었다. 하늘을 마주 보며 잠들 수 있다니. 기꺼운 마음으로 침낭 속에 기어들어가 잠을 청했다. 얼마나 잤을까. 추위에 잠이 깼다. 추워서 꼼짝 하기 싫었지만 정말 옷 한 겹 더 입지 않으면 추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둠을 더듬어 옷을 하나 덧입고 하늘을 마주보기는커녕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침낭 밖으로 나갈세라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잤다. 나는 그날 밤 자연과 싸웠다. 어쨌든 죽지는 않았고 비몽사몽간에 아침을 먹고 다시 꼬리치레도롱뇽을 관찰했다.

야영 마지막 날, 계곡을 따라 줄기차게 내려갔다. 역시 계곡에 등산화를 적시고, 무릎을 바위에 세게 갖다 대고... 잠시 뒤 가벼운 차림으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시는 분들께 같은 질문을 했더니 고맙게도 '5분'이라고 대답해주셨다. 다 왔다니 신이 나 모두들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점심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물놀이를 했다. 얼마만의 물놀이인지.아스팔트길로 나오자 다시 숨이 턱턱 막혀왔다. 다행히 트럭을 얻어 타고 집결지에 도착했다.

저녁을 해 먹고 다른 모둠들과 야영경험을 나누었다. 모두들 나름



대로 재미있어 보였다. 청생을 마치고 서울로 오는 날, 시간 감각이 없어서 몇일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단지에 걸린 태극기를 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하고 생각했다.

청생에서 애초부터 얼마 있지도 않았던 내 힘을 모두 써버린 탓에 사나흘 간은 열이 빠져서 방에 드러누워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릴 힘도 없이 천장만 보며 지냈다. 그래도 청생을 다녀온 뒤 너무 좋은 것은 이전 집에 모기가 없다는 것.

풀피리를 불다

는 것, 하늘이 두 층은 높아진 것,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그리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자꾸 배낭과 좋은 침낭이 갖고 싶은 것.

생태적인 산행이란 뭘까.

이 질문의 답을 구하고, 정상 정복 위주의 산행에서 벗어나 동식물들도 날 싫어하지 않게 되고 자연과 진정으로 벗하게 될 때까지 나의 청생은 끝나지 않는다.

* 3모듬 일정

미산리 계곡(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 개인약수 → 방태산 깃대봉 → 방태산 주억봉 → 삼거리 → 미산리 계곡

글 : 강혜원

I 자료 I

처음 생긴 도로, 하늘재에 오르다

9월 대간지킴이 탐사 예정지였던 금강산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로라고 하는 하늘재(높이 525m)를 찾아갑니다. 신라 아달라왕 때(156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하늘재는 문경새재보다 먼저 열린 고개입니다. 하늘재에 오르면 푸른 나뭇잎 사이로 맑은 가을 하늘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에서 시작해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로 넘어가는 하늘재. 문경쪽은 2차선 포장도로로, 충주쪽은 월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비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 시대, 백제와 고구려로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하늘재가 지금은 자연관찰로로 옛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륵리에는 우리나라 사찰로는 유일하게 북쪽을 향했던 미륵사는 당간지주 같은 흔적으로 그 시절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와 흙길의 두 모습을 지니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하늘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세한 내용]

- * 일 정 : 9월 23-24일
- * 출발 시간과 장소 : 9월 23일(토) 오전 9시 양재역 7번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 * 참 가 비 : 30,000원(교통비와 입장료, 식비 등)
- * 준 비 물 : 산행에 필요한 복장, 따뜻한 옷, 침낭, 매트리스, 3끼 분의 쌀과 반찬, 간식, 개인수저와 그릇

* 신청 : 백두대간보전팀 조희은 plain@greenkorea.org (신청은 9월 20일까지 이메일로 해주세요.)

* 자세한 일정

프로그램

신라시대 때 열린 길 하늘재와, 조선시대 때 열린 길 문경새재를 걸어보고 느낀다. 요즘은 체험교육과 해설프로그램이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월악산국립공원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지역에서는 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광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09월 23일

- 오전 9시 : 양재역 출발
- 낮 12시 : 도착, 점심식사
- 오후 2시-4시 : 월악산 국립공원 하늘재 자연탐방프로그램 (월악산, 마의태자의 발자취를 찾아나서는 하늘재)
- 조령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휴양림에서 야영)
- 저녁식사
- '마음도 쉬어가는 고개를 찾아서' 저자 김하돈 님과의 만남
- 밤 휴양림 산책
- 잠들기

09월 24일

- 오전 7시 기상, 아침 휴양림 산책
- 아침식사
- 문경새재도립공원으로 이동
- 오전 11시 - 12시 문경새재 문화역사해설
- 점심먹으며 이야기 나누기

하늘재와 문경새재, 백두대간 옛길을 가다

...

한양이라 오백릿길
찾아가는 황소떼
두루마기자락 허리에 찌른
터벅대는 소몰이꾼.
저것이 문경 새재
서러운 서른 굽이

박달나무 젖은 이슬
키장수 체장수 눈물일까.
봄바람 타고 올라왔다
찬바람에 묻어 돌아가는
안동 영해 청상과수 한 맺힌 눈물일까.

저 고개 넘으면
새 세상 있다는데,
우리끼리 모여 사는
새 세상 있다는데, ...

- 신경림 시인의 '새재' 중에서

* 옛길

하늘재(630m)

경북 문경 관음리에서 충북 충주 미륵리로 넘어가는 길목에 하늘재가 있다. 이 조붓한 고갯길은 조선초 문경새재가 열리기 전까지

만 해도 영남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서울로 가는 주요 도로로 문헌에 기록된 한반도 최초의 도로이며 고개이기도 하다. 하늘재는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지대로 군사요충지였고 불교문화가 넘나드는 길이기도 했다.

새 길이 열리면 옛길은 잊혀지는 것. 조선 태종 때 새재가 개척되자 백두대간 최초의 고갯길이었던 하늘재는 한갓 셋길로 전락하여, 포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새재를 뚝뚝하게 지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나 검문이 번잡스런 부모상들, 그리고 말이나 소를 동반한 천민들이 간섭 없는 이 고개를 넘었다. 그나마 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된 관음리 일대의 오래된 가마터들만이 소통과 교역의 옛일을 일러줄 뿐이다. 지금도 하늘재 정상에서 미륵리까지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무시로 넘나들 수 없는 길이 되어, 고즈넉함과 안정을 되찾았다.

옛 역사에 기록된 하늘재

- 아달라 이사금 3년(156년) “여름 4월에 계립령 길을 열었다”: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러 간 김춘추에게 보장왕이 “마목현과 죽령은 본래 우리땅이니 돌려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조
- “계립령과 죽령 북쪽의 땅을 되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삼국사기 권45 열전 온달조
- 고려 고종 42년(1255년) “몽고군이 대관령을 넘자 충주에서 정예군을 보내 천여명을 죽였다.”: 고려사
- “계립령을 사람들은 마골점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관음원은 계립령 아래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하늘재는 불리는 이름이 몇 가지가 된다. “계립령을 사람들은 마골점이라 한다”거나 “속칭 마골산이라 한다”는 기록으로 발전한다. 계립이나 마골, 마목은 모두 껍질을 벗긴 삼대, 즉 겨릅대를 가리키는 동의어들이다. 현재 이 곳 주변은 모두 세 곳에 각각 달리 부르는 고갯길이 있다. 총주담이 된 남한강에서 송계계곡을 타고 오르다 보면 ‘닷돈재’라는 고개 이름이 남아있고, 수안보에서 미륵리 절터로 넘어오는 고개 이름이 ‘지릅재’다. 그리고 미륵리 절터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경북 문경 관음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오늘날에는 ‘하늘재’라 부른다.

백두대간의 개념을 모르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지금껏 그 이름이 뚜렷이 남아있는 지릅재를 계립령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릅재나 닷돈재의 경우에는 다만 한강유역에서 한강 유역으로 넘어가는 같은 유역 내의 고개일 뿐이고, 낙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나누는 백두대간의 고개는 바로 하늘재이다. 이 곳에 이명박은 현재 경부운하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에 구멍을 뚫어 강물을 지나 가게 하는 것으로 주변의 생태계만이 아니라 백두대간의 근본개념,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다.

문경새재

과갯길이나 한양나들이길로 알려진 영남대로(嶺南大路)는 조선시대 한양을 기점으로 하는 아홉 갈래의 길 중에서 가장 번듯한 길이었다. 이 길은 충청도 동북부지방을 거쳐 부산 동래까지 이르는 380km. 낙동강 문화권과 한강 문화권을 연결하는 주요한 길목에 자리한 새재는 영남대로 가운데 가장 통행량이 많고 중요한 고개였다.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가장 짧은 고갯길이었던 새재는 청운을 꿈을 품고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의 희망이었고, 낙향하던 관리들의 허탈함을 달래주던 조금은 쓸쓸한 고개였다. ‘문경(聞

慶)’ 이름은 기쁜소식을 듣는다는 의미로 한양으로 과거보러갔던 선비들의 장원급제와 금의환향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곳이었다.

새재는 여러 뜻을 지니고 있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높은 고개’라는 유래가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의 한자 표현이 조령(鳥嶺)이다. 그리고 ‘새’를 ‘사이’로 풀면, 새재는 하늘재(麻骨嶺)와 이우리재(伊火峴) 사이의 고개가 되고, ‘새로운’으로 해석하면 삼국시대 이후 쓰이던 계립령 대신에 ‘새로(新) 개척한 고개’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옛 문헌에 기록된 초점(草岾)은 ‘새(역새풀)가 우거진 고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이름의 새재는 조선 태종 때 본격적으로 개척되어,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임을 파악한 15c 말에는 제2관문인 조곡관을 세웠고, 1708년(숙종 34)엔 조곡관 앞뒤로 제1관문인 주흘관과 제3관문인 조령관을 첩첩으로 세우기도 했다. 이후 새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추풍령과 이화령에 신작로가 나고 포장이 되면서 점차 잊혀진 길이 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새재의 유적지를 복원하자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한반도의 대표선수로 명성을 드날렸던 문경새재의 실체를 확인하려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다.

길은 깎아 넓히고 포장하는 게 미덕인 요즘 시대에 고갯길이 아직 비포장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덕이라 한다. 박정희는 1937년 4월, 문경공립보통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2년 9개월간 문경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70년대 중반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문경을 순시하다 무너진 성벽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고, 이후 이곳에 차량통행금지를 명령했다. 이것이 문경새재가 아직 흙길로서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이유다.

그 밖의 백두대간의 유산들

하늘재를 중심으로 충주쪽의 '미륵'과 문경쪽의 '관음'이라는 지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고갯마루 양쪽엔 제법 큰 도량이 있었고, 이 길은 불교문화가 전해지는 길목으로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오히려 외세에 의해 모두 불타버리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문경쪽에서 하늘재로 오르는 길목인 관음리 일대엔 반가사유상·약사여래입상·오층석탑·석불좌상 등 여러 점의 석물들이 흩어져 있다. 하늘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불교 흔적은 고갯마루에서 2km쯤 내려간 관음마을 안쪽에 자리한 반가사유상이다. 작은 바위면에 새겨져 있는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이다. 머리에 삼면화관(三面花冠)을 썼으며, 원만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입술도 예쁘다. 다만 몸에 비해 오른팔이 너무 짧고 무릎 아래쪽이 명확하지 않아 미적으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늘재를 넘어 다니는 길손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다정히 바라보았을 것이다.

충주 미륵리 절터

서기 935년에 신라는 후백제 견훤과 고려 태조 왕건의 신흥세력에 더 이상 대항할 길이 없자 군신회의를 열어 고려에 항복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마의태자는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다며 동생 덕주공주와 함께 개골산(금강산)으로 긴 망명의 길을 떠난다. 문경에서 하늘재를 넘어 중원의 미륵댕이에 도달한 마의태자는 그곳에 절을 짓고 미륵불상을 북향하도록 세웠다. 덕주공주는 한걸음 더 나아가 월악산 남쪽자락에 덕주사를 세우고 남향한 암벽에 마애불을 새겨 미륵리의 석불과 마주보게 하였다. 그 후 마의태자는 개골산에서 배움을 입고 초근목피로 여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마의태자는 끝내 개골산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의 송악이 가까우면서 산세가 험준한 인제 땅에 머물면서 고토회복을 꿈꾸었다는 설로, 인제 상남 김부의 대왕각이 그 잔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확증 없는 상상의 몫으로, 지금은 덧없는 세월 속에 무심한 절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문경 관음리의 도자기 마을

마을의 지명으로 하늘재 부근에서 짚어야 할 게 있다. 미륵리의 '점말'과 관음리의 '사점'이다. 지명에서 둘 다 사기그릇을 굽는 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충주쪽 점말 가마터에선 청화백자·철화백자·초문철화백자 등이 많이 출토되었고, 일제 때 일본인이 자리를 잡고 자기를 굽던 가마터도 발굴되어 한국과 일본의 도자문화 교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주 점말의 가마에선 연기가 끊긴 지 오래되었지만, 문경 사점 마을의 가마에선 아직도 연기가 솟아나고 있다. 사점 마을뿐만 아니라 하늘재 아래의 관음리·갈평리 일대엔 문경 도자기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도요지가 널려 있다. 조사에 의하면 관음리엔 조선 중기 이후의 가마터가 57개소나 있었다고 한다.

하늘재 주변이 도자기로 유명하게 된 까닭은 흙·불·물의 자연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자기의 몸체가 되는 고운 흙인 태토(胎土)다. 문경의 태토는 끈기가 있고, 철분 함유량이 많아 민기(民器)를 빚는 데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경 일대에 널려 있는 회황색 사토는 고급스런 청자류보다는 투박한 분청사기를 만드는 데 적합했다. 분청사기는 분방한 형태와 빛깔로 우리 민족의 소박한 심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백두대간 분수령의 첩첩산골에 있으니 땀감으로 쓸 소나무도 넉넉했다. 흙을 물에 넣고 휘저어 잡물을 없애는 수비(水飛)작업엔 맑

은 석간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늘재 주변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질 좋은 석간수도 지천이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더해진 한가지가 또 있으니 바로 판로였다. 백두대간의 험한 산줄기로 첩첩산중이면서도 남한강과 낙동강이 인접해 있어 영남대로의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기 편리했다. 관음리에서 백두대간의 하늘재를 넘어 달천을 따라 내려가면 남한강의 황강나루에 이르고, 동로면 쪽에서 차갯재나 벌재를 넘어 단양천을 따라 가면 남한강 하진나루가 나온다. 이렇게 남한강에 도착하면 배를 타고 한양을 비롯한 경기도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낙동강 수계는 문경에서 영남대로를 이용하거나, 문경의 산북과 산양을 거쳐 금천을 따라 가면 영순의 삼강나루에 이를 수 있었다. 낙동강 뱃길은 상류의 안동이나 하류의 상주·선산을 지나 부산의 동래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번창하던 도자기업은 6·25전쟁 뒤에 심한 타격을 입었으나 1960년대 중반이후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강탈해간 뒤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찻사발인 이도다완(井戸茶碗)의 기술적, 정신적 뿌리를 문경에서 발견하여 일본인들이 문경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문경이 이도다완의 본 고향은 아니다. '우물'이라는 이도(井戸)의 어원은 경남 하동의 '샘골가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오래 단절되었던 이도다완의 생산기법을 근래에 발견해 이를 재현한 곳은 하늘재 아래의 관음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신정희·천한봉·서선길·김정옥 같은 도공들이 이도다완 재현에 매달린 지 수십 년. 이제 이곳은 우리나라 찻사발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예산 낭비의 대표 주자, 도로 중복 - 이화령

녹색연합은 2005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현장을 다니며, 도로 건설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 현실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도로 중복 투자로 한 해, 5조 4천억의 예산 낭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2005년 진행 중인 고속도로·국도 신설·확장으로 인한 중복·과잉투자 구간 27곳, 중복거리 434.8km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구간이 이화령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화령은 좁고 한적한 길이었다. 대동여지도에 당당히 이화현(伊火峴)이라는 명패를 올렸으나, 영남대로의 가장 큰 고개로서 조선팔도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새재 앞에 명함을 내밀 처지는 못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25년 길이 넓혀지면서 신작로가 뚫리자 순식간에 운명이 뒤바뀌었다. 새재를 넘던 행인들은 명패를 이화령(梨花嶺)으로 고치면서 좀더 빠르고 편하게 바뀐 이 고개로 몰려들었다. 이후 이화령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3번 국도에 각각 하나씩 터널이 뚫렸다.

이화령은 3번국도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 중복·과잉투자의 대표적인 구간인 이화령구간은 문경에서 이화령을 지나 수안보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이격 거리가 500m도 채 안 되는 공간에서 이화령을 지나는 4차선의 국도와 고속도로가 병행하며, 또한 옛 3번국도가 그대로 놓여 있다. 특히 국도인 이화령터널 구간은 현재 교통량이 계획 당시 예측교통량(27,300대)의 20~30%에도 못 미쳐 민자사업자인 새재개발(두산건설 자회사)이 국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4년 12월 29일 1심에서 70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로 ① 건설교통부 도로정책

의 부실, ② 예산의 과잉과 자동차·도로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 ③ 부풀려지는 교통수요예측, ④건설업의 과잉을 들수 있다.

조선시대 이화령은 새재에 가려진 한적한 길이었고, 세월이 흘러 3번 국도가 되었고, 포장되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그러나 1998년 고개 아래로 터널이 뚫림으로써 고갯길은 점차 인적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경부내륙고속도로 이화령터널이 개통됨으로써 고갯길은 아주 한적했던 이전 분위기로 되돌아갔다. 이런 길의 흥망성쇠 속에 사라져간 생명들을 떠올려 본다.

남대천, 연어를 찾아서

연어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알래스카북극곰이 연어를 사냥하는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나 있을법한 한 장면, 연어도 서양 사람들이 즐겨먹는 다른 나라의 물고기정도로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북태평양에서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자라다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강을 찾아 힘차게 헤엄치는 연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예전부터 물이 맑고 깨끗해 우리나라 강과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70% 이상이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하니 가히 연어의 강이라고 할만합니다.

그러나, 연어의 생과 사를 품고 사는 어머니강 남대천이 예전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곳곳에 농업용수를 위해 설치한 수중보는 연어가 거슬러 오르기에 너무도 험난한 길입니다. 하천 상류에는 양수발전댐이 건설되어 맑은 물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구요. 사람들에게 의해, 혹은 생태계 변화로 많아진 육식성 어종, 피라미, 꺾지같은 물고기들은 연어알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남대천으로 모여드는 연어들은 양양 내수면연구소에서 포획, 인공수정 후 키워 방류한 치어들이 자라 어미와 아비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들입니다. 옛날 마을 사람들은 상류를 향해 올라오는 시커먼 연어떼를 햇불을 들고 잡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예전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백두대간 물줄기에서 생명이 시작하여 먼바다 여행을 하다 제 새끼를 낳기 위해 어머니강을 찾아든 남대천 연어, 10월에는 고향을 찾아 먼 길을 헤엄쳐 온 연어를 만나러 갑니다.

[자세한 일정]

10월 21일

- 오전 8시 : 양재역 출발
- 낮 12시 : 도착, 점심식사
- 오후 2시-3시 : 양양 내수면연구소 방문
(연어알 인공수정 과정, 연어 성장과정 교육)
- 오후 3시 30분-5시 : 남대천 연어축제 참가(백두대간 마을, 양양에서 진행되는 연어 축제는 연어를 주매체로 활용,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연어의 모천인 남대천에서 진행되는 연어 축제가 연어 보호와 동시에 지역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축제 체험을 통해 알아본다.)
- 송천마을 민박집
- 저녁식사
- 연어 관련 비디오 시청
- 이야기 나누기
- 잠들기

10월 22일

- 오전 6시 30분 : 기상, 아침 마을 산책
- 아침 먹기
-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이동
- 이야기 나누기
- 출발

연어가 찾아온 고향의 모습

1. 가로막힌 고향길

일본 열도를 무사히 통과하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온 연어 떼들은 한 무리 두 무리 나뉘어 모천을 찾아 떠난다. 고향 집이 가까운 연어들은 강원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고성외 명파천을 비롯하여 양양 남대천,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등으로 찾아간다.

이들보다 고향이 더 남쪽인 연어들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경상북도의 울진 왕피천, 영덕 오십천 그리고 경상남도의 울산 태화강 등으로 찾아든다.

그런가하면 동해안을 돌아 다시 남해안을 한참이나 지난 다음 전라남도 섬진강으로 올라가는 연어도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수많은 강과 하천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연어가 찾아들 만한 고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만을 찾는 연어가 우리나라에서 찾아가는 강과 하천은 전국에 걸쳐 고작 열 아홉 곳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수는 적게는 2만 마리에서 많게는 4만 마리 정도인데, 그 가운데 70% 이상이 동해안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양양 남대천으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자연 개발과 자연 보존의 갈등

예전에는 동해안의 두만강을 비롯하여 남해안의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전국의 강에서 연어가 찾아와 알을 낳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두만강에서는 연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물을 쳐 놓고 연어를 작살이나 몽둥이로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강에서 연어가 사라진 지 오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나마 동해안 대부분의 하천에는 많은 연어가 찾아왔지만, 이제는 일부 하천만이 연어의 고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명파천의 경우, 예전에는 연어가 많아서 아이들이 쇠꼬챙이를 들고 연어를 잡았으며 동네 개들도 연어를 물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저지른 환경 파괴 때문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연을 개발하지만, 이는 자연환경의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천 주변에 콘크리트로 된 독을 쌓는다. 하지만 이 독으로 말미암아 얕은 물가가 없어지므로 새끼 물고기들이 쉬거나 적을 피해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어지게 된다. 홍수가 질 경우에는 물 흐름이 더욱 빨라지는 바람에, 물고기들이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한순간에 휩쓸려 내려간다. 사람들은 편히 살기 위하여 하천 주변의 풀과 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 자리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세운다. 이 또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갖가지 풀과 나무가 자라는 땅은, 비나 눈이 내리면 마치 스펀지처럼 물기를 머금었다가 천천히 물을 하천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와 콘크리트로 덮인 지역에 많은 눈비가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물고기가 사는 환경을 해치게 된다. 수력 발전을 위해 만든 댐은 말할 것도 없고, 물을 가두어 농사용으로 쓰기 위하여 하천 물줄기를 따라 곳곳에 만들어 놓은 수중보는 어떤가? 이런 것들은 물고기들의 이동 통로를 막아 버린다. 그리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각종 침전물이 쌓이고 썩는 바람에 하천은 더 이상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다. 어디 이것뿐인가? 가정을 비롯하여 공장이나 축사 등에서 나온 하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흘려보낸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하천을 오염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수질이 나빠진 하천에서는, 1급수의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연어, 은어, 뱀장어

등의 회유어가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남대천의 환경

남대천의 경우는 어떤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오염되지 않은 하천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다. 상류에는 산천어, 버들개, 꺾지 등이 자라고, 중류에는 피라미, 갈겨니 등이 그리고 하류에는 꺾저기, 붕어, 메기, 민물 참개 등이 살고 있다. 회유성 어류로서 봄이면 송어, 황어, 은어 등이 올라오고 가을에는 연어가 찾아온다. 하지만 하천 주변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생활 하수와 축산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최근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남대천의 지류 가운데 하나인 후천에 국내 최대인 100만kw 규모의 양수 발전소가 2006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제군에 있는 해발 900m의 단목령 계곡에 상부 댐을, 그리고 양양군의 후천에 하부 댐을 만들고 지하 터널로 두 댐을 연결하는 것이다. 양수 발전소라는 것은, 낮에는 상부 댐에 고인 물을 지하 터널을 통해 하부댐으로 흘러보내 발전을 하고, 저녁에는 하부 댐에 모인 물을 다시 상부 댐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공사 중인 저수 댐이 완공되면 후천의 물 흐름은 완전히 끊기고 각종 물고기의 보금자리 또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도 예전과 달리 자연 생태계에 신경을 써서, 댐으로는 처음으로 물고기들이 49m 높이에 있는 저수 댐을 넘어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도가 만들어진다.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고 있어요’에서 발췌-

성기백,보림출판사, 2004년>

연어를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 2 곳

오산리 선사유적지 - 양양군 오산리에서 쌍호라는 호수를 매립하다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 유적 중(토기류와 석기류를 비롯) 큰 낚시바늘도 출토되었는데 이것이 연어를 낚기 위한 도구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곳 선사유적지는 2007년 전시장으로 개장될 예정

동해신묘 - 나라가 관장하여 바다의 신을 위한 제를 지냈던 곳. 보통 마을이나 읍에서 관장하는 신당은 많지만 나라에서 제를 지낸 곳은 많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에 따라 자연신을 모셨는데 동해는 양양에서 동해신묘, 서해는 황해도에서 서해신사, 남해는 남해신사, 북쪽은 바다가 없어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강신을 모셨음. 현재는 북쪽의 유적을 알 수 없고 남해는 위치가 정확치 않아 남한에서는 동해신묘가 유일한 국가가 관장하는 신묘라고 할 수 있음. 고려 시대(공민왕)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제시대 훼손되었다가 현재 일부 복원되어 있음. 왕과 바다를 동급으로 여겨 풍농과 풍어를 기원했던 진귀한 유적지. 동해신묘의 지척에는 남대천 하구가 있고 이곳 모래톱 사이로 연어가 올라옴.

연어

- 정호승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그 얼마 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깊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 마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오늘 내가 꾸 꿈은 네가 꾸 꿈의 그림자일 뿐
너를 사랑하고 죽으러 가는 한낱
숨은 별들이 고개를 내밀고 총총히 우리를 내려다본다
이제 곧 마른 강바닥에 나의 은빛 시체가 떠오르리라
배고픈 별빛들이 오랜만에 나를 포식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밤을 밝히리라

양양 남대천 연어를 찾아서...

10월 말에서 11월은 저 멀리 알래스카 베링해로 나가 살던 연어들이 돌아오는 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연어들의 70% 가량이 몰려든다고 해서 대간지킴이는 이번에는 양양으로 행선지를 정했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주말 고속도로 위의 정체를 피할 수는 없었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양양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고 양양의 연어연구센터에서 연구원로부터 연어의 종류와 습성, 성장과정, 산란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역시 전문가의 설명이 홍보책자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 같다.

이곳 양양 연어연구센터에서는 남대천으로 돌아온 연어들을 포획해 암컷, 수컷으로부터 각각 알과 정액을 채취해 수정시킨 뒤 치어로 성장시켜 이듬해 봄에 방류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연어들은 동해를 거쳐 멀리 알래스카 근처 베링해로 가서 살다가 3~5년이 지나면 알을 낳기 위해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도중에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인간에게 잡히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해서 회귀율은 1%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강한 개체만 부화하고 살아남게 되는데 인위적인 기술로 인공부화를 시키니 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사람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오래 살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어는 연어대로 잘 사는 게 좋을 텐데 말이다.



남대천에서 포획되어 채란장으로 옮겨지는 연어 암컷

그런 연어가 예전에는 동해 남해 가릴 것 없이 찾아들고는 했는데 지금은 수질 악화와 수온 상승 때문에 동해안의 몇 하천에만 돌아오고 있다. 연어는 냉수성 어종이라 수온과 수질이 연어의 생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맘때면 연어가 남대천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수온이 높아 하구 근처에서 머물기만 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연어의 채란과 수정 작업은 이튿날 다시 와서 보기로 하고 연어축제가 벌어지는 남대천 둔치의 행사장으로 향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우후죽순으로 생긴 축제들은 어쩌면 행사장 가득 찬 음식점과 토산품 판매장을 통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국 어디 어느 축제를 가나

비슷한 형식에 새로울 것 없는 구성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살려 짜임새 있는 내용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담았으면 좋으련만..



연어 반 사람 반인 연어잡기 행사

연어 축제장인 남대천에서 연어잡기 체험행사가 벌어지는 것을 구경했다. 남대천에 그물을 쳐놓고 바다에서 잡아온 연어를 풀어 사람들이 들어가 맨손으로 연어를 잡는 방식이었다. 남대천에는 바다에서 영문도 모르게 잡힌 연어와 사람이 뒤엉켜 연어 반, 사람이 반이었다.

축제 구경도 그쯤 하고 연어가 남대천으로 들어와서도 상류로 올라갈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인 수중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수중보

는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보(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둑)인데 어류의 이동을 위해 통로(어도-물고기가 올라가는 길)를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남대천 수중보의 어도는 턱이 너무 높아 연어가 뛰어 올라가기엔커녕 사람도 겨우 매달려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보였고 만에 하나 올라간다 해도 통로의 경사가 심해 연어가 올라가기엔 힘에 부친다고 했다. 그리고 물이 오염된 것, 하천의 깊이가 얕아진 것도 연어가 올라가기 힘든 이유다.



임전보(수중보)의 턱없이 높은 어도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송천떡마을이라는 곳에 정해놓은 숙소를 찾아갔다. 옛날 방식대로 떡메로 내리쳐서 떡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곳이라는데 우연찮게도 우리의 숙소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유명한 집이었다. 인심 좋은 주인아주머니께서 그날 오후 떡을 만

들고 남았다며 맛보라고 주신 떡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새벽에 떡 치는 소리에 잠을 깬 몇몇은 구경하러 나가서 갓 만든 떡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다.

둘째날 아침, 송천떡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양수발전소 하부댐을 둘러보았다. 길 가에는 양수발전소 건설과 이어져 설치되는 변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설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몇 년에 걸친 댐 건설 반대 운동을 기어이 무력화시키고 지은 댐, 올해 여름에는 하부댐에서 방류한 물이 남대천을 오염시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는데, 이런 댐이 일년에 또 얼마나 가동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다시 양양 연어연구센터로 갔다. 벌써 정치망에 갇힌 연어들을 끌어와 암수를 구분 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두어 번 그물로 연어를 끌어 오더니 연어의 머리를 나무방망이로 내려쳐 기절시킨 뒤 컨베이어벨트로 둔치 위 채란장으로 올려 보냈다. 그곳에서는 암컷 연어의 배를 갈라 연어알을 꺼낸 다음 수컷 연어의 정액을 짜내 섞는 작업을 했다. 전날 설명을 다 들었지만 실제로 그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자니 연어의 목숨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모든 작업이 속전속결로 금세 끝났다. 숙련되면 빨라지고 빨라지면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연어의 일생을 생각할 할 수도, 감정을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리라...

사실 나는 연어라고 하면 삐죽 솟은 설산을 배경으로 시커먼 곰이 개울 한가운데 서서 넓적한 앞발로 물을 때려 연어를 잡아 올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고로 우리나라에도 연어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어쩌면 훗날 누군가 '예전에는 연어가 가끔 찾아오곤 했다더라.'며 이야기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역동성이 남대천의 말라가는 물과 만나서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듯 해 안타깝기만 했다.

우리가 찾아간 남대천은 비교적 하류였음에도 강의 하류답지 않은 유량을 가지고 있었다. 비가 내려 땅과 숲이 물을 머금고 건조할 때에 그 물을 내보내 일정한 유량을 유지하는 선순환 고리가 딱히 어느 곳이라고 짚어 얘기 할 것도 없는 도로 포장과 무분별한 건설공사로 인해 끊어지고 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해 가을 가뭄에 단비가 되길 바랐는데 그만 폭우가 내려 또다시 강원도 일대에 큰 피해가 났다니 이거 참, 점점 무서운 일이 되어간다.

글 : 강혜원

야생동물 밀렵방지 캠페인

코끝이 찡해지도록 시린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움 추려 드는 추운겨울인데요.
한 겨울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야생동물에게도 겨울나기는 만만
치 않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빈산에 거센 바람소리와 눈만이 가득
하니깐요. 먹이 찾기도 쉽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도 수월찮구요. 더
구나 사람들이 몸보신하겠다고 온 산 가득 밀렵도구를 걸어두는
바람에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사실 겨울 추위야 어렵사
리 견뎌 보겠지만, 목숨 줄을 죄어오는 밀렵도구에는 속수무책입
니다. 한번 걸렸다면 움짱달짝 못하다가 숨통이 막혀와 고통스
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사
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밀렵방지 캠페인을 떠납니다. 작은 노력이
나마 보태서 겨울 숲 속, 흰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인거죠.

이번에는 우리 땅에서 야생동물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
고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인 경상북도 울진으로 갑니다. 멸종위기
에 처한 희귀종인 산양, 삵, 하늘다람쥐, 수달 같은 야생동물이 살
고 있는 곳입니다. 그 덕택에 밀렵꾼들의 표적이 돼서 해마다 헤
아릴 수 없이 많은 야생동물이 밀렵으로 죽어나가는 곳이기도 합
니다. 녹색연합이 매년 밀렵방지 캠페인을 하며 수 십 개의 울무

를 걷어내는 곳이지요.

이 추운 계절, 울무와 덮에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야생 동물을 위해 여러분의 땀을 나눠주세요. 이 땅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때 : 2006년 12월 15일(금) - 17일(일) 2박 3일
- ▶ 곳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원
- ▶ 주최 : 녹색연합 '대간지킴이'
- ▶ 함께하는 이 :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 ▶ 참가비 : 4만원
- ▶ 출발 예정시간: 12월 15일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오전 8시

★ 밀렵방지캠페인 세부일정 ★

12월 15일(금요일, 첫째날)

8:00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15:00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민박집 도착, 소광리 소나무 숲에 들기

17:00 저녁밥 해먹기

21:00 이야기나누기

12월 16일(토요일, 둘째날)

06:00 일어나기, 아침밥 해먹기

08:00 밀렵방지캠페인

17:00 밀렵방지캠페인 종료, 숙소 돌아와 밥해먹기

21:00 이야기나누기

12월 17일(일요일, 셋째날)

6:00 일어나기, 소광리 아침 숲과 만나기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경북 울진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보물같은 곳이 여럿 있다. 더우기 무더운 여름날이면 울진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대표적인 피서지로 두 군대를 뽑을 수 있는데, 울진 왕피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왕피리 계곡과 불영사계곡의 발원이 되는 소광리일대의 계곡이 그것이다. 왕피리계곡은 고려말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공민왕이 숨어 들어갔다는 이름처럼, 구비구비 아찔한 박달재고개 비포장 산길을 넘어서 들어가야 한다. 때문에 외지인들에게는 꼭꼭 숨겨진 절경을 산너머에 감추고 있다. 반면에 울진군 서면 소광리일원은 산을 넘지는 않지만 구비구비 이어진 계곡을 따라 거슬러 흙먼지 일으키며 비포장길을 따라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경북 봉화에서 울진방면 국도상에 있는 통고산 자연휴양림을 지나 5km쯤가면 "소광" 이정표 보이는 광천교 앞에 서게 된다. 길은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때때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길, 자갈길이다. 계곡의 모습도 산 모퉁이를 돌아서면 한가로이 흐르던 모습에서 어느새 우렁찬 소리를 세차게 쏟아붓는 소와 폭포의 모습으로 바뀌곤 하길 여러번, 그렇게 물길을 따라 광천교 입구에서부터 약 4km를 들어가면 작은 마을이 하나 나타난다. 마을에는 민박농가가 여러곳이 있고 인심은 후덕하기 그지없다. 마을을 지나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왼쪽 길을 따라가면 폐교된 2층 건물의 삼근 초등학교 소광분교를 지나 자수정광산으로 알려진 소광2리 울진 달우 자수정광업소로 갈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해마다 자수정줍기 행사가 열린다. 찾아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에 흙과 돌가루 투성이고 다소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숨겨진 보석 자수정을 찾아내는 것처럼,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찾아가서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괜찮을 듯 싶다. 다시 삼거리로 되돌아나와 오른쪽길로 소광

천 계곡을 죽 따라가면 간간이 나타나는 농가가 눈에 띄며 여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암반 계류가 계속 이어진다. 삼거리에서 약 8 km를 더 들어가면 소광리 끝마을 대광천 마을이 나온다. 이곳은 과거 화전민 이주정책에 의한 화전민 이주단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행하니 남아 있는 집터와 폐가만이 여행객들을 맞이할 뿐 당시의 분주했던 모습은 적막강산 속에서 상상으로 그려볼 수 밖에 없다. 이 곳에서 다시 길이 두갈래로 나뉘는데 두 길 모두 산으로 오르는 길이다. 왼쪽길로 2km가량 나아가면 세계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좋다고 알려진 울진 금강소나무 천연보호림지역이 나온다. 흔히 불리워지는 적목이라는 표현은 일본인들에 의해 붙여진 잘못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금강송 또는 황장목이 맞다. 봉화의 춘양지방의 이름을 따서 춘양목이라 부르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보존상태이니만큼 울진군당국에서 이 소나무숲에 쏟는 관심도 각별하다. 특별한 학술조사나 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일체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소나무 숲의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도로로 임도를 따라 1km지점에 위치한 약 3,000평 규모의 금강소나무 관찰림을 구경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기물이나 음식물 등의 반입은 자제하며 울창한 천연림을 눈으로 감상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숲의 어떤 것도 훼손치 않고 보호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임도 시작지점의 바리케이트 앞에는 수령이 500년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금강소나무가 우뚝 서 있으며 마주편에는 탐방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진군 산림과에서 만들어 놓은 소나무전시관이 조촐하게 마련되어 있다. 갈림길 오른쪽길로 해서 산을 넘어가면 광산터를 지나 국내 최고의 비경 삼척용소골로 내려 설 수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차량은 통행이 불가하고 걸어가기엔 민가가 있는 덕풍마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도상거리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험하기로 소문난 협곡인 용소골 계곡을 통과해야 하므로 단순히 탐승을 위

해서 준비없이 찾아가기는 힘들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찾아가야 하고 비좁은 비포장길은 때때로 차량의 교행조차 힘들다. 따라서 울진군이 숨겨놓고 있는 소광리 일대는 외지인들의 때를 덜 탄 까닭에 그만큼 조용하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었다. 8월의 더위를 피해 소광리 개울가에서 발담그고 물장구치며 놀거나 소나무 숲에서 내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도 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 역시 이 일대의 숨겨진 보석처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계곡미와 숲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지 않고 간직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당신에게

신영복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백두대간 속의 소광리 소나무숲에서 이 업서를 띄웁니다. 아침햇살에 빛나는 소나무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바쁘게 뛰어 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한 켈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하나 번번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같았습니다.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리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 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정궁의 기본공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의 소나무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 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히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곧은 둥치에서 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기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의 자동차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뺏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엮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고라니 , 뱀 우리는 모양식이 아닙니다.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한 피해

데일리안, 홍성민 네티포터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몸보신들은 모두 하셨나요? 예부터 우리나라는 이열치열이라 하여 한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이라든지 어죽 등으로 허해진 기를 보충하기 위해 보신문화를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보신문화는 즐기는 수준을 지나쳐 야만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면 검증되지도 않은 야생동물을 밀렵하여 고가에 거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몇 해 전 밀렵에 대해 고발한 TV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밀렵과 밀거래의 실태를 알 수 있었는데,

고라니를 밀렵한 후 피와 고기를 먹고 가죽만 남긴 장면이나 밀렵꾼의 집에 밀폐된 공간에 두 달간 방치되어 서로를 잡아먹고 죽어가는 야생너구리의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비무장지대의 사향노루도 밀렵의 대상이 되며, 암컷물케에 돼지의 생식기를 달아 수컷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파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정력에 좋다고 소문난 오소리나 구렁이, 뱀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고라니, 산양, 수달 같은 희귀동물도 선금을 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야만적인 보신문화는 이미 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국내에서의 야생동물학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면서 보신관광을 하는 등 국가 위신을 추락 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까지 건너가 국립공원을 돌면서 곰쓸개, 발바닥 채취를 위해 곰 사냥을 하다가 들통이나 국가망신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방콕의 뱀집들은 한국의 보신관광객을 겨냥해 한글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고 있더니 정말 못 말리는 한국의 보신문화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보신문화로 인해 야생동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동물 한 마리가 잡아먹히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며 야생동물의 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먹이사슬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보신용으로 너도나도 잡아먹는 것은 생태계에서 인위적으로 한 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처럼 자기 몸을 보신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도 야생동물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부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소리만 있으면 효과를 확

인하기도 전에 먹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야생동물에는 오히려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밀거래로 거래되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안 좋을 것이며 또 중간단계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이미 썩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동물을 날것으로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는데 특히 뱀에 있는 기생충은 혈관을 타고 다닐 정도로 강하며, 잠복기간이 20~30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생동물을 먹은 후 바로 증상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병을 일으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야생동물 보신을 이대로 방치하다보면 소수의 천연기념물은 물론 지금은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머지않아 멸종될 것입니다. 또 위생적으로 불량한 야생동물 섭취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며 나아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루 빨리 그릇된 보신문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하여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에게도 처벌을 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근본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법이 아무리 강력한 법을 제정한다 해도 밀렵과 잔인한 야생동물 보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야생동물을 보신상품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모든 동물이 멸종되어 자연생태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서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이 없으면 결국 인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잘못된 보신문화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그침없는 야생동물의 비명

대전일보 2006-10-03(李永敏·兪善皓 기자)

불법 밀렵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논산시에 따르면 대둔산과 벌곡창업단지 야산에 보호야생조수가 다수 서식하고 있으나 불법 포획꾼들이 설치한 올무에 걸리는 등 주민에 의해 신고된 건수가 올해만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수렵협회에서 밀렵에 대해 감시역할을 하고 시와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벌곡면에 사는 한 주민이 올무에 걸려 뒷다리가 부패되고 탈진 상태인 너구리를 발견, 동물보호협회 등에 구조를 요청했다.

벌곡면 신양리 야산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동물보호협회에 인도되기도 했다. 시는 상처를 입은 보호조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한 뒤 희생하면 방생하고 죽으면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무 등을 이용한 불법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나 올무 등의 철거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긴급출동이나 생포, 보호 등 큰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에게 긴급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별곡면 김모씨(55)는 “총포를 이용한 불법밀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올무 등을 이용해 밀렵을 하고 있다”며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과 지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총포를 이용한 밀렵은 주민들의 신고로 근절됐다고 봐야한다”면서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몸보신하는 방법

사흘 만에 서울로 돌아왔더니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들은 예보에서는 강원도 산간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야생동물의 흔적을 알아보기가 쉬워진다. 쌓인 눈 위로 야생동물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추위에 녹지도 않아 흔적이 그대로 남고, 배설물은 흰 눈과 색이 대비돼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밀렵꾼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이 무렵, 대간지킴이에서 올진 소광리로 밀렵방지캠페인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오지종의 오지라는 소광리는 흔히들 적송이라고 부르는 금강소나무로 유명한데 왕이 죽으면 이 금강소나무로 관을 짚다고 한다. 그래서 황장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조선 숙종 때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 먼 길 달려 울진에 접어들었다. 비포장 흙길과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다리를 십수개 건넌 뒤에 소광리에 도착했다. 가는 길 내도록 보인 것은 공사중인 도로. 구불구불한 옛길은 불편하니 곧게 넓게 뻗은 새 도로를 만들고, 고속도로 접속도로를 만들고, 이래저래 도로공사가 곳곳에서 진행중이었다. 가끔 새 도로가 개통되었다는 뉴스기사에 시간이 얼마 단축되었다는 설명이 나오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0-20분 단축하자고 국토를 그렇게 파헤치나 싶었다. 그 도로로 사람이 오가며 소통을 한다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엔 또 다른 새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자재를 실은 트럭이 오가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이 전국 구석구석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달린다. 구불구불해서 천천히 가야하는 옛길 옆에 있던 작은 식당들은 새 도로가 생기며 문을 닫기 일쑤이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새 도로변에는 큰 자본이 필요한 대형 휴게소가 들어선다. 새 도로가 나면서 물류시간이 단축된 덕에 공장에서 만들어낸 두부, 콩나물 등등이 시골 슈퍼에도 진열된다.

몇 번이고 생각해 봐도 이것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역을 살리자 살리자 말만 많았지, 이런 식으로 지방색을 잃어가고 전국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 새 도로 내는 것만 좀 더 줄이면 새만금 간척지도 필요 없고 땅 못 내놓겠다고 고함치는 사람들과의 마찰도 생기지 않을 테다. 흥.



울진 소광리 산양보호지역

아무튼, 휴대폰도 먹통이 되고 마는 소광리에 도착해 금강소나무 숲 산책을 했다. 늘씬하게 뻗은 나무들이 보기 좋았다.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소나무숲에서 참나무숲으로 천이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곳에서는 우수한 금강소나무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 천이과정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예전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소광리의 소나무를 베어다 썼다는데 이번에 광화문 복원하는데에도 이 잘생긴 소나무들을 베어다 쓰지 않을까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다.

이튿날 아침, 먹을거리와 올무 제거에 쓸 장비들을 챙겨 길을 떠났다. 지도에도 표시되어있지 않은 임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다 산으로 능선을 타고 올라갔다. 산림청 소관이라는 임도의 주변 절개지는 전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비라도 오면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바위가 굴러 내릴 태세였다. 진정 산을 살리고 숲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지는 못할 거다.

한참 능선을 타고 오르는 중에 잠시 멈춰 숨을 돌리며 맞은편의 첩첩 산을 바라보는데 겨울 산에는 소나무만이 푸르렀다. 옛사람들의 수목화의 정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속되는 산행 중에 산양 똥도 보고 노루 똥도 봤다. 내 눈에는 안보여도 야생동물들이 여러 위험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이 고마울 지경이었다. 앉아 쉬는 중에 나무 위를 올려다봤더니 겨우살이가 잔뜩 있었다.

주로 참나무류에 기생한다는 겨우살이는 사실 봄여름가을에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 단지 참나무 잎이 떨어지고 없는 겨울에만 우리 눈에 보일 뿐. 그렇다면 겨우살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지난번에 온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북쪽 사면을 걸을 때는 산양의

발자국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들 이야 산양의 발자국을 보고 반갑다고 좋아했지만 산양은 우리가 어지러이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고 이것들이 또 자길 잡으러 온 건 아닌가 하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옛사람들이 넘나 다니던 고갯길의 성황사

야생동물의 흔적은 점점 자주 보이는데 올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슬슬 보통의 산행처럼 되어갈 무렵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해도 막 저물기 시작하려는 때라 엄습

하는 조난의 공포 속에 속도를 내어 하산했다. 흥미진진해지려는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눈발은 금새 잦아들었다. 하산하는 중에 누군가의 발에 올무가 걸렸다. 크기로 보아 멧돼지를 잡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했고 지지대로 받쳐져 있지 않고 땅에 흘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설치한 지 오래 된 듯 했다. 펜치로 올무를 끊어내는 순간의 쾌감!!

계곡으로 내려와 빨리 내려가는 길을 택해 전날 차를 타고 들어갔

던 길로 나왔다. 산행도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산길 한 시간과 비포장 흙길 한 시간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지간하면 산길을 택하겠지만 산을 타 넘는 것은 그만하고 싶어서 흙길을 걸었다. 발바닥이 아렸다.

숙소로 돌아와 밥을 해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다. 따뜻한 방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난 일요일, 오전에 소광리를 떠났다. 하나의 울무를 제거하고 떠나는 길에 울무가 얼마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떠날 수는 없었다.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면 그때부터 밀렵꾼들도 길을 나설 것이기에.

참 말도 많은 우리나라의 보신문화. 이런 것에도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까 모르겠지만. 밀렵한 동물을 소비하시는 '님'들. 밀렵꾼들이 자기가 잡은 야생동물을 먹는 것 본 적 있으세요? 밀렵꾼들은 매일같이 산타고 다니며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해서 보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몸 생각을 하신다면, 산속으로 밀렵방지캠페인을 함께 가 보심이 어떨지.

글 : 대간지킴이 강혜원



소광리에 있는 500년 소나무

관련 연락처

- 김하돈 시인 / 010-5503-2086

- 월악산국립공원 / 043-653-3250

월악산 국립공원 마골치에서 대미산, 벌재는 백두대간 구간이지만 비법정탐방로로 들어가면 안되는 곳임. 하지만 종주객들은 다 다니고 있음. 덕주야영장, 뒯돈재 야영장이 있고, 미륵사지 근처에는 없다.

- 문경새재박물관 안태현 학예연구사 / 054-572-4000 / 017-533-8040 / folkpia@hanmail.net

-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사무소 054-571-0709(새재해설사)

- 조령산 자연휴양림 043-833-7994(야영장 차량 포함되면 5,000원 비용 3,000원)

- 국립수산물과학원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424-1 김태영 /033-672-4180,3729

- 탁씨네민박(팜스테이농가- 강원 양양 송천떡마을)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79-1

연락처 033-673-4316

휴대전화 011-9918-4316

- 김명석 회원

주소: 강원 양양군 서면 미천리 37번지 불바라기산장

연락처: 033-673-4589

- 정념스님

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낙산사

연락처: 033-672-2448

펴낸 곳 : 녹색연합
펴낸 이 : 대간지킴이
펴낸 날짜 : 2006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홈페이지 : www.daegan.org
전화 : 02-747-8500
전송 : 02-766-4180

